‘도예’라고 쓰고 ‘에세이’라고 읽는다


정운 스님.


정운 스님 作 ‘환한 웃음’.

리 뷰

정운 스님의 ‘이야기가 있는 도예전 II’

‘현대적’ 넘어 ‘동시대적’ 공감 감성
직접 빚고 그린 작품 80여 점 전시
삶서 마주한 이야기 그림과 도예로

박재완 기자 waniholo@hanmail.net

벚꽃 잎이 흩날리는 길을 따라 걸어들어간 갤러리에는 또 다른 꽃잎과 풀잎들이 정갈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 매화도 보이고, 연꽃도 보인다. 그리고 나비도 보인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원이자 보령 세원사 주지 정운 스님의 도예 작품들이다.

정운 스님은 4월 6일부터 11일까지 서울 경인미술관 제6전시관에서 ‘이야기가 있는 도예전 II’를 열었다. 충남 보령에서 30년 가까이 청소년 교화와 포교에 헌신해온 정운 스님은 7년 만에 여는 두 번째 전시에서 ‘겸허한 미소’, ‘절에 가는 길’ 등 현대적 감각의 도예작품 80여 점을 선보였다. 그랬다. 현대적이다. 달리 말하면, ‘동시대적’이다.

그리고 전시 명에서 보이듯이 작품 하나하나에는 분명한 이야기들이 있다. 그 첫 번째가 작품의 제목들이다. 모든 작품에는 제목이 있지만 정운 스님 작품의 제목들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온다. 제목은 이야기의 시작이다. 모든 예술의 첫 번째 목적과 의미는 ‘공감’일 것이다. ‘소통’이다. 정운 스님의 작품 앞에 서면 작품과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 우선, 스님의 이야기가 들려온다. ‘달을 보는 섬’, ‘쉬었다 가세’ 등 툭툭 던지는 스님의 이야기가 들려온다.

정운 스님의 작품은 손수 빚은 도예작품에 손수 그린 그림이 그려져 있다. 연꽃이 각양각색으로 피어있고, 민들레홀씨가 날리고, 나비가 날고, 잠자리가 날아다닌다. ‘정운의 그림’은 말(言) 대신 쓰는 말(言)이다. 그래서 예쁘다. 예쁜 마음 그려낸 그림이다. 현실에서 본 것들을 그렸지만 현실에선 볼 수 없는 그림이다. 정운의 마음에 사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그 그림을 담아내는 형식은 접시 형태의 도예도 있고, 타일 형태도 있고, 독립된 형태의 배열도 있다. 그렇게 제목, 도예, 그림 세 가지가 작품의 이야기를 완성한다. 도록에는 시(詩)가 붙어있는 작품도 있다. 이야기는 한 번 더 깊어진다. 스님은 시인이기도 하다.

“뭔가 집중하고 싶은 맛이 내 안에서 꿈틀거릴 때 나는 작업실을 향한다. 그때그때 생각들이 응집되어 손끝으로 뿜어 나오는 에너지가 또 다른 이름이 되어 내게로 다가올 때 놓칠 수 없는 또 하나의 수행도구임을 확인한다.”

정운 스님의 작품은 그렇게 나온다. 하루의 어디쯤에서 문득, 출가자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지나칠 수 없는, 시인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것들과 만날 때 그 지나칠 수 없고 외면할 수 없는 것들 앞에 서서 지나치지 못하고 마주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에 대해 사유하고 성찰한다. 그렇게 사유와 성찰을 거친 것이 정운 스님의 글이고, 도예고, 그림이다. ‘에세이’다. 정운 스님의 작품들은 그래서 동시대적이다. 그때그때 삶에서 건져낸 이야기들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작품 ‘백신’을 본다. 작품은 ‘흰 고무신’을 형상화하고 제목을 ‘백신’이라고 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야기를 붙였다. 도록에는 ‘백신’에 시가 함께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 / 스님의 머리에 잘못 올라 탄 코로나 백신 균들은 / 머리카락이 없어 바로 균이 결착하지 못하고 / 미끄러져 떨어져서 죽기도 하는데 / 그 원인은 스님들이 신는 흰고무신 때문이라 한다. // 코로나균이 스님의 머리에서 미끄러져 떨어지면 / 스님이 신고 있는 ‘흰고무신’에 부딪히게 되는데 / 이때 대개는 뇌진탕으로 죽거나 일부는 발냄새에 의해 / 시한부로 박멸된다는 것인데 이것이 아이러니하게도 / 흰고무신(백신)인 것으로 밝혀졌다. // 2년여 간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힘든 시기에 / 이런 이야기가 위로가 된다면 하는 생각에 / 즐겨 신는 흰고무신을 부각시켜본다.” 정운 스님의 ‘현대적’은 ‘동시대적’이다.

그렇게 스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관람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된다. 슬픈 노래나 슬픈 영화를 보면서 자신으로 전이되는 감정선, 장례식장이나 슬픈 현장에서 자신의 이야기로 전조되는 감정선 같은 것이다. 감성이 내재된 콘텐츠나 형상과 마주하면 우리는 그것과 이야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절에 가는 길’, ‘함께’, ‘별은 떨어지고’, ‘봄날은 가고’, ‘그리운 몸짓’, ‘위로’, ‘고목에 핀 희망가’ …. ‘정운의 세계’ 앞에 서면 한 출가자와 한 시인과 한 도예가와 만난다. ‘공감’이다. 서로 다른 길에 서있지만, 서로 다른 것을 들고 있지만 한 곳에서 만나는 것이다.

정운 스님은 도예가의 이름 앞에 출가자의 이름이 먼저다. 시인의 이름 앞에도 법명이 먼저다. 스님은 출가자의 본분인 하화중생으로 청소년 교화에 평생 헌신했다. 스님의 작품세계와 무관하지 않다. 스님은 2005년부터 스님의 공방을 아이들에게 개방했다. 아이들은 그곳에서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세계를 경험한다. 예술이라는 거창한 테마가 아니라 손에 흙을 묻히면서 자연을 만난다. 조금이나마 자연의 존재를 인식함으로써 자신도 모르는 사이 자신의 깊이와 크기가 달라진다. 글자와 교육으로 할 수 없는 ‘제도(濟度)’다. 정운 스님은 그렇게 하루하루 흙을 빚고, 빚어낸 도판 위에 일기를 쓰듯이 그림을 그린다. 흙에 쓰는 에세이다.

정운 스님은 1975년 석남사로 출가했다. 운문사 강원, 내원사 선원, 중앙승가대학을 거쳐 혜전대학 도예과, 군산대학교 산업도예과, 한서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 석 · 박사를 졸업했다. 사회복지박사로서 한서대학 겸임교수 및 보령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세원아청문화육성회 회장을 역임했다. 5권의 시집과 5권의 산문집을 낸 시인이기도 하다.

콜롬비아 무대 서는 한국현대무용 ‘우담바라’

인터뷰 콜롬비아 초청공연하는 김복희무용단 대표 **김복희**

김복희무용단 콜롬비아 초청공연
2022년 보고타 국제 도서전 참가
보고타 콜론극장 4월 23일~24일
‘우담바라’ ‘피의 결혼’ 무대 올려

김복희무용단과 김복희 대표는 한국현대무용의 짧은 역사 속에서 50년이 넘는 역사를 쓰고 있는 현재진행형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지난 3월에 정기공연을 마친 바 있는 김복희무용단이 콜롬비아 무대에 선다. 김복희무용단은 4월 19일부터 5월 2일까지 열리는 콜롬비아 보고타 국제도서전 기념행사에 참여해 4월 23일과 24일 보고타 콜론극장에서 두 차례 공연한다. 김복희무용단이 이번 무대에 올리는 작품은 1997년 초연한 대표레퍼토리 ‘피의 결혼’과 남지심 소설 〈우담바라〉를 원작으로 한 ‘우담바라’이다.

한국과 콜롬비아는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아 4월에 열리는 보고타 국제도서전과 6월에 열리는 한국 국제도서전에서 각각 주빈국으로 서로 참여하여 다양한 기념행사를 마련한다. 콜롬비아는 중남미 유일의 6.25 한국전쟁 참전국이다. 당시 연인원 5314명의 콜롬비아군이 참전해 우리와 함께 싸웠고, 이는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양국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은 이번 2022년 보고타국제도서전에 문학분야에서 김경욱, 은희경, 이문재, 정영수, 한강(온라인 참가) 등의 다양한 한국문학작품과 작가들이 참여한다. 그와 함께 한국문학을 보다 친근하게 알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프로그램도 진행한다. 그리고 가장 한국적인 콘텐츠를 소개하기 위해 한국문학 단편영화와 김복희무용단의 공연을 진행한다.

춤에서의 현대성, 현대춤에서의 한국성을 추구하는, 한국 현대무용계의 독보적인 안무가이자 창작무용가인 현대무용가 김복희가 이끄는 김복희무용단은 2020년에 창단 50주년을 맞이했다.

“어린 시절 방학이 되면 어머니를 따라 절에 가서 지냈죠. 어머니는 새벽 4시면 일어나셔서 관음기도를 올리셨어요. 매일아침 눈을 뜨면 어머니의 염불소리가 들렸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늘 저를 깨어있게 하는 힘이 어머니의 염불소리였던 것 같아요. 어머니는 저에게 관세음보살과 같으세요.”

김복희 대표는 한국적인 정서를 바탕으로 극적 요소가 풍부한 안무의 현대무용을 구현해왔다. 그리고 그 한국적인 정서의 중심은 불가적 정서라고 할 수 있다. 김 대표가 50년 넘게 한국 현대무용의 역사와 저변을 확장시키면서 수많은 작품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춤이 수행이 되고, 수행이 춤이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소설 〈우담바라〉는 제가 1980년대 말에 읽었던 것 같아요. 그때 소설을 읽으면서 언젠가는 무용으로 만들어야겠다고 가슴에 늘 품고 있었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마음에 품었던 작품을 2021년 작년에서야 무대에 올렸습니다.”

김복희의 무용 ‘우담바라’는 3000년에 한 번 핀다는 천상의 꽃 ‘우담바라’처럼 모든 인간이 소중함을 춤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소설 속에 담겨있는 다양한 인간, 즉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로, 하나의 개체로서의 삶 속에 스며있는 사랑과 배신 그리고 죽음을 통한 인간의 성찰을 그리고 있다.

김복희무용단은 한국무용의 세계화를 실천하며 김복희무용단만이 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를 더욱 발전시켜 한국적으로 재해석한 작품들로 세계무대를 겨냥하고, 지속적으로 더 나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예술적 시도를 모색하고 있다. 김복희 대표는 “‘한국 현대무용의 세계화’라는 타이틀로 예술계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한국 현대무용의 우수성을 소개함으로써 한국 공연예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지평을 넓히고자 끊임없는 도전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재완 기자


김복희무용단 김복희 대표.


www.boryeon.com

도량장엄 전문기업
보련기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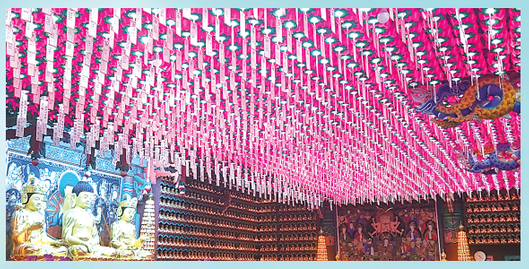
도량장엄등
부처님오신날 봉축기념탑
연등자동승강장치
원불전, 인등, 위패
각종 시설물 제작·시공

보련기획 BORYEON
010-5381-9355
031-526-220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문현로 189번길 27

도 량 장 엄 등

부처님오신날 봉축기념탑


연 등 자 동 승 강 장 치


원 불 전


인 등

위 패
